

부천문화재단

ssue

PAPER

이 슈 페 이 퍼 2015-2호

고가도로 하부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재생

미아리고개 하부공간활용 공공미술 사업을 중심으로

부천문화재단 이슈페이퍼

정 기 황 (사단법인 문화도시연구소 상임연구원)



부천문화재단
Bucheon Cultural Foundation



고가도로 하부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재생

미아리고개 하부공간활용 공공미술 사업을 중심으로

부천문화재단 이슈페이퍼

정 기 황 (사단법인 문화도시연구소 상임연구원)

부천문화재단
ISSUE PAPER
이 슈 페 이 퍼

발행처 부천문화재단
발행인 이진선
편집인 손경년
연구기획 이윤이 문화정책팀장
신정호 문화정책팀
박효빈 문화정책팀
발행일 2015. 10.

이 보고서는 최근 문화예술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내용으로 부천문화재단의 공식의견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는 부천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인도프로젝트의 개요 및 기획의도
- 미인도프로젝트의 시행
- 미인도프로젝트의 교훈

저자 소개

정 기 황

- 사단법인 문화도시연구소 상임연구원
- 건축학 박사 / (주)엑토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강사 / 서울시민대학 강사
- 미인도프로젝트[공공미술(지역재생+예술) 시범사업-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총괄기획자

고가도로 하부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재생

미아리고개 하부공간활용 공공미술 사업을 중심으로

1. 「미인도프로젝트」의 개요 및 기획의도

遊休空間은 ‘놀’ 또는 ‘즐겁게 지낼」 「유」 + ‘실」 「휴」가 결합한 단어이다. 즉 ‘비워진 공간’임과 동시에 ‘문화적 가능성의 공간’임을 내포하고 있다. 도심 내 유휴공간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폭넓게 존재한다.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니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나쳐 버리는 공간일 것이다. 주로 고가도로나 지하철 등의 교통 기반시설로 인해 만들어지는 공간들이다. 교통 기반시설은 도시가 작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대체로 그 기능(차량 등의 이동)에만 충실한 경우가 많다. 즉 시설로 인해 만들어지는 공간과 주변 지역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유휴공간은 버려진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많은 경우 버려진 채로 방치된다. 실제로 이런 공간들은 음침하고, 어두운 공간이 되어 범죄 등이 자주 발생하는 우범지대가 되는 경우도 많다. 유휴공간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극복이 가능한 공간도 많이 존재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고가도로 대부분과 지하철의 하부공간은 개발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도시의 밀도, 지가(地價)가 높은 곳에서 이런 유휴공간은 정말 아까운 공간이다. 또한, 공간의 활용

2014년 동선 고가도로 주변역



동선 고가도로



주변 간선도로 전경



주변 골목길 전경



고가도로 하부 차도

을 떠나 지역을 단절하거나, 우범지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밝은 공간이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유희공간은 ‘문화예술공간’으로 적합한 시설이다. 또한, 유희공간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이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가. 버려진 공간

: 미아리고개 하부 유희공간(동선 고가도로)

미아리고개 하부공간은 최소 평당 지가가 일천만 원이 넘는 땅이며, 이런 수백 평의 땅이 버려져 있었다. 계획 당시 공간은 기껏해야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 창고, 비워진 공간으로 방치되다시피 한 공간이다. 주변 지역은 일명 ‘오토바이 픽치기’가 성행하는 우범지역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또한, 고가도로 주변 지역들은 창고, 빈집으로 변하면서 점점 낙후되어가고 있는 지역이다. 동선 고가도로를 사용하는 차량 이외의 지역주민, 환경미화원, 행인 사람들에게는 열악한 환경만을 제공하고 있다.



고가도로변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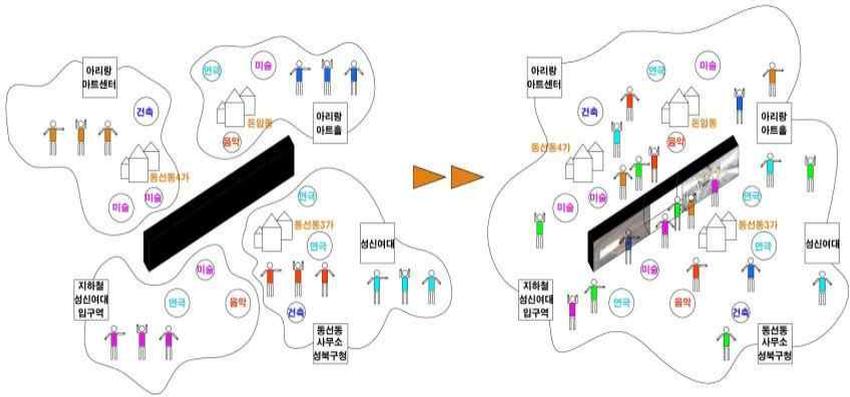
고가도로변 인도



고가도로변 차도



고가도로 하부공간과 인도를 활용해 20여년을 유지하고 있는 재활용쓰레기집하장



미인도프로젝트 개념도

나. 공간 되찾기 :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거버넌스

미인도프로젝트의 시작은 성북문화재단에서 시작된 문화 예술인들의 네트워크인 '공유성북 원탁회의'에서다. 공유성북 원탁회의는 말 그대로 '성북'을 문화예술을 통해 공유하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논의 할 수 있는 장이다. 공유성북 원탁회의는 106개 단체, 173명(2015. 03. 04. 기준)의 문화예술인이 모이는 모임이다. 이 모임에서는 성북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간과 사업을 공유하여, 성북문화재단을 거버넌스 구조로 만들어가는 논의가 주로 이루어진다. 그 논의 중 하나가 미아리교개 하부공간이었다. 미인도 프로젝트의 처음 생각은 매우 단순했다. 그 생각은 '이 공간을 밝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공간으로 만들면 범죄도 예방되고, 주민들의 삶의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공간은 밝고, 사람의 왕래가 많게 하려면 어떤 콘텐츠가 필요할까.'로 앞선 말한 바와 같이 고가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2014년 동선 고가도로 활용실태



고가도로 하부 창고



고가도로 하부 창고



재활용쓰레기 집하장

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해 보자였다. 그리고 때 마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CO)에서 공공미술(지역재생+예술) 공모사업이 나왔고, 이 사업에 맞게 모임에서 하던 논의를 발전시켰다. 이 모임의 문화예술인들은 성북구에 거주하거나,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즉 많은 사람들이 주민으로서 문화예술인이었다. 이는 지역에 대한 정보와 문화예술과 관련된 주체, 공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미인도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했던 동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공의 공간의 공유'와 '공유성북 원탁회의에 모이는 많은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의 토론'과 '주체적인 참여하는 단체 또는 개인 문화예술인'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즉 관에서 행정적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의 기획과 진행을 민간에서 주도하는 '민간주도형 거버넌스 구조'로 만들어진 사업이다.



고가도로 하부 창고



환경미화 시설



환경미화 시설

|공유성북원탁회의(2014. 03. 11.) 미아리고개 하부 공간 관련 두 번째 논의

+ 친구네 옥상

문제가 많은 공간이었다. 소음, 습기, 물 샌 자국, 곰팡이 등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될 것 같다. 유동인구도 적은 편이다.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문화 특구를 형성해보자는 생각을 한다.

+ 장애인문화예술 판

답이 안 나오는 공간으로 보인다. 지원을 받아 최소한의 수준은 만든 후에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현재 상황으로는 협동조합 등의 공동창고로 지역에 환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문화도시연구소

컨테이너를 넣어서 소음, 습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창고보다는 열린 공간으로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 서울 괴담

공간이 아닌 장소, 그곳을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 성북문화재단

안 좋은 공간을 미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조금의 아이디어를 보태서 가능한 그림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관련 자료 등은 공유하겠다.

2014 짐짓기 사업계획서_미아리고개 고가다리 하부

준영통을 잇는 생활가로 활성화

2동과 준영통을 잇는 연결공간으로 주민과 청소년 대학생이 많이 이용될 문지 있는 오래된 건물이 밀집 지역 시, 길기 좋은 길이 될 것으로 기대. 지역주민과 학생, 예술가들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고가, 하부 준영통과 청소년이주센터, 아리움 이브를 중심으로 상선여대 1동과 골목까지 이어지는 보행가로 활성화.

고가 하부 활용 개선

는 아늑하고, 젊은 재로 번식되어 있을 특히, 북은사거리 고가 하부는 함께 다니기 어려운 경망, 좁은 인도층 확장, 위치 이동, (역)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 예술가들이 거주, 작업하는 마을임, 작은 극단과 예술가 집단에서 창작과 공연 등을 위한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을 성북구 기반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차원에서 고가 하부 공간을 창작 공간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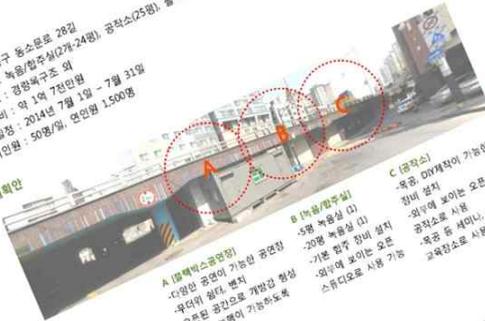
주민/예술가들의 네트워크 조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가 하부 공간이 예술가들의 공간과 겹치면서 주민과 예술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 높이고, 예술가들의 직업 과정이 인식될 수 있는 공간 조성

사업개요

- *건축규모 : 용소문로 28일
- 시공시 성북구 용소문로(27~24동), 공적소(25동), 불목백소(25동)
- 건축면적 : 녹음/하부(27~24동) 의
- 건축구조 : 경량계구조 의
- 층수/높이 : 약 1억 7천 만원
- 공사일정 : 2014년 7월 1일 ~ 7월 31일
- 참여인원 : 50명/일, 연인원 1,500명

계획안



A (불목백소/중앙역)
 -이영민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
 -위탁이 있다. 벤치
 -오른편 공간으로 개방할 예정
 -재작성 보행이 가능하도록 인도 확장

B (녹음/하부)
 -5명 녹음실 (1)
 -20명 녹음실 (1)
 -기분 잡주 장비 설치
 -외부로 보이는 오픈 스튜디오 사용 가능

C (공적소)
 -욕음 DMZ제작이 가능한 장비 설치
 -외부로 보이는 오픈 공간으로 사용
 -욕음 등 세미나, 교류장으로 사용

만주상, 동화구문, 기타 등 공간에 의 할 전통으로 인한 문제 해결 시, 가 창작공간 지원, 고가하부의 물막
 타 다차와 달리 고가하부는 공적
 친화마을
 같은 공간 등의 상선이 가능한 물막
 공간으로 사용.

	7월	9월	4월
2주			



공유성북문화기획을 통해 제안된 시·단법인 문화도시연구소의 미아리고개 하부 공간 활용 방안

다. 문화예술로 주민에게 공간 돌려주기 : 미인도프로젝트 기획의도¹⁾

대지에 발을 굳건히 디딜 수 있는 사람만이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이다. 하지만 대지라는 사실과 실제에 기초한 합리성이 사라진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부유한다. '대지에서 부유된 이들로 하여금 대지를 느끼게(Aisthesis²⁾)하는 것이 문화예술이 해야 할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문화예술과 주민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미아리고개'의 이야기^{History}

'미아리고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지명이다. 하지만 누구도 현재의 '미아리고개'를 상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아리고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자연의 고개에서 인공의 고가도로로 변했다. 이런 도시화 과정은 오로지 '경제적 합리성³⁾'을 바탕으로 한 개발로 이루어졌다. 고가도로는 최대한 공사하기 편한 공법으로 빠르게 만들어지고, 물류의 이동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최대한 자동차가 빠르고 많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렇듯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개발에 사람과 마을 그리고 경관 따위는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고가도로는 이곳을 빠르게 지나치는 지역으로 만들어 놓았고, 하나였던 마을을 둘로 갈라놓았다. 또한, 고가도로 하부는 음침하고, 걸기 힘들고, 위험한 길이 되었다. 이렇게 수십 년이 흘러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냈으니, 어쩌면 우리가 '미아리고개'를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미아리고개' 또는 '미아고가도로'는 음침한 우범지대, 콘크리트 덩어리, 비워진 곳, 버려진 공간으로 전략해버린 곳일 뿐이다. '미아리고개'는 급격한 산업화·자본주의화·도시화를 겪은 서울의 모습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곳이다. 이곳의 역사·장소·일상의 의미적 가치는 앞

- 1) 정기황, 『미아리彌阿里고개, 역사·장소·일상 그리고 예술』, ARCO. 인용.
- 2) 우리가 주로 '미(美)' 또는 '미학'으로 번역하거나 사용하는 'Aesthetic'의 어원인 'aisthesis'는 대상을 지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의 근원이 대상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현실에 대한 지각과 이에 따르는 실천이 가능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예술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3) "우리나라의 경우 유일하게 공공영역에서 소통되는 공유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경제논리에 바탕을 둔 기능적 합리성일 것이다. 여기서는 경제지표와 통계 숫자가 공통의 언어다. 반면, 공공영역의 합의된 미적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소통되는 미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새로움과 특이함이라고나 할까.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지만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움이나 최신유행을 반영하는 듯한 디자인이 관심을 받는다. 이것은 18세기 미학적 개념으로 보면 현대의 서브라임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유된 미적 규범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이미지의 끝없는 소비라는 자본주의적 상품시장경제 논리의 반영에 다름 아니다." 이상헌, 『공공영역과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건축과 사회 통권11호』, 새건축사협의회, 2008, 62-63쪽.

서 말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 잠식당해버렸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이곳에 공공성이나 미적 가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본주의적 논리에 빠져 사람을 버렸고, 마을을 버렸고, 도시를 버렸다. 이 기획은 이곳에서 예술은 '무엇을 보고, 듣고, 느껴야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미아고가로'와 '장소특정적 예술^{Site-specific Art}'의 현재로의 소환

'미아리고개의 역사'와 '미아고가도로의 공간' 그리고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이곳의 '장소'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듣고, 느꼈다. 그렇다면 주민들로 하여금 대지에 발을 디딜 수 있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우리 사회를 유행처럼 스쳐 가고 있는 또는 스쳐 간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찾아보려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자본주의에 포섭되어 또다시 상품화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에게 역사·장소·일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장소특정적 예술'의 흐름은 더욱 그렇다. '장소특정적 예술⁴⁾'은 일상의 공간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예술가)를 가깝게 연결해주었고, 우리의 일상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에게 예술가(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여전히 고지식한 벽이 존재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행이 철지난 사조로 폐기되어야 하는 대사이기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는 의미론적이고, 맥락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다. 미인도 프로젝트는 이런 고민을 통해 예술이 '심미화된 공간의 조성' 또는 '미적인 상품 생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하나됨⁵⁾'을 통해 서로가 자극을 주고받는 실천적이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로 진행하였다.

4) <행동하는 문화>는 이전의 공공미술 모델들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카고 시 전체를 무대로 삼아, "미술 작업의 창작에서 다양한 공동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초점을 맞췄다." -종략- <행동하는 문화>는 도시 지향적인 조각 전시 장르 안에서 새로운 표현 양식을 정립했다. 그것은 공공의 참여와 상호작용의 영역, 행동하는 사회 세력으로서의 미술가의 역할을 시험하고, 미술가가 주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작품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하며, 단지 잠시 동안 보는 데 그치는 관람 중심의 작품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지향했다." 권미원, 김인규·우정아·이영옥 역, 『4장. 장소로부터 공동체로-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장소 특정적 미술』, 현실문화, 2013, 160쪽.

5) '하나됨'은 주민들의 생산과 소비에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성의 회복과 실천적 공간으로서 장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예술가와 주민, 주민과 주민, 주민과 마을을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미인도(彌人道)프로젝트’, 일상을 위한 예술을!

‘미인도 프로젝트’의 우선적인 목표는 미아고가로 주변을 어둡고, 위험한 곳에서 밝고, 재미있는 곳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먼저 고가도로 하부로 단절된 마을과 마을을 작품화된 굴다리로 연결하여 커뮤니티 회복에 기여하고, 예술과 쉽게 만나는 장이 되도록 한다. 비워진 하부공간에는 기존에 있던 환경미화, 마을방범 시설을 예술화하여 일상에 재미와 편의를 부여하고, 공연장·갤러리·연습실 등의 주민과 함께하는 예술적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로 하여금 상주하는 사람과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짐으로써 주변 골목길이 밝고, 안전한 생활가로로 탈바꿈할 것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지역 프로젝트로 자리 잡기 위해 주변 지역의 아리랑아트홀·동선동주민센터 등의 물리적 자원과 시각장애인단체·점집·대학교 등의 인문적 자원 그리고 예술단체·예술가·주민 등의 인적 자원이 어우러지는 즉,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의 적극적인 연계작업으로 작품과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우리가 대지를 지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현실에 발을 딛는 첫걸음이다. 그들로 하여금 공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예술이 해야 할 일이다. 즉, ‘미인도 프로젝트’는 버려진 미아고가도로의 숨을 불어넣는 작업으로 일상가의 공간을 주민들과 함께 예술화하는 과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
- 6) 미인도는 미아리고개의 ‘彌’, 사람을 뜻하는 ‘人’, 길을 뜻하는 ‘道’의 합성어이다. ‘미’는 역사, 예술, 프로그램, 지역성 등의 소프트웨어를, ‘인’은 주민, 예술가, 지역예술단체 등의 휴먼웨어를, ‘도’는 고가도로, 건물, 도로, 골목길 등의 하드웨어를 의미하고, 이것들이 조화되어 신윤복의 그림 ‘미인도’처럼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프로젝트 명이다.
- 7) “만약 예술의 종말이 상품이 되는 것이라면, 상품의 종말은 예술이 되는 것이다. 일상적인 소비생활에는 쓸모없고 사용 불가능하게 된 상품이나 친숙한 물품이 예술에게는 한 역사를 나타내는 물건이자 ‘무관심한 쾌감’의 대상으로서 유용한 것이 된다.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심미화된다. ‘이질적으로 감각적인 것’은 도처에 있다. 일상생활의 산문은 거대한, 환상적인 시가 된다. 어떤 대상이든 경계선을 넘어서 미감적 경험의 영역에서 다시 거주할 수 있다.”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ere), 『미학 혁명과 그 결과·자율성과 타율성의 서사 만들기』, 『뉴레프트리뷰』, 도서출판 길, 2009, 483쪽.

2. 「미인도 프로젝트」의 시행

가. 무관심한 공간 : 주민과 행정절차

+ 사건1: 동선동 주민은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한다. 또한 자취생활을 하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이 많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거의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다. 많은 주민들은 개발이 되거나, 지가가 오르길 원한다. 설명회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통장 등 지역유지들이다. 한 할머니께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내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여기다 왜 이런 걸 만들어 돈을 낭비하게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한 번은 그 할머니께서 나에게 두 시간 가까이 말씀을 하신 적도 있다. 할머니의 일대기를 다 들을 수 있었다.

+ 사건2: 동선동 자율방범대는 손바닥만한 창문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공간을 두고 활동하셨다. 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 몇 번을 요청 드렸으나, 그 안에 들어가 본적이 없다. 이 공간의 주인도 아니고, 별다른 활동을 하시는 것 같지도 않았지만, 철거할 때 많은 방범대원분들이 나타나셔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공사 도구들을 발로 걸어차고,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들의 공간을 원상복구 해 놓으라고 말씀하신다. 공사 전에 어렵게 방범대장님을 만나 도면과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고 허락을 받았음에도 말이다.

+ 사건3: 환경미화시설은 약 20년을 동선 고가도로 하부 공간과 전면의 인도에 재활용쓰레기를 적재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왔다. 주변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쓰레기장으로 기억하고, 싫어하는 혐오지역이었다. 주민들조차도 이곳에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곳이었다. 서로 공생하고 있으면서도 환경미화원들은 민원으로 힘들고, 주민들은 쓰레기의 악취

2015년 6월
미인도프로젝트 시행



환경미화시설



환경미화시설 청소



환경미화시설 철거



자율방범시설 철거



환경미화시설

와 소음으로 힘들어했다. 미아리고개 하부공간의 많은 부분이 환경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제일 먼저 만나고, 제일 많이 만났음에도 시간과 절차상으로 가장 복잡하고 오래 걸렸다. 성북구청과 대체 부지와 공간 이전으로 협의하고, 결정되었음에도 환경미화원분들을 모르고 계시고, 우리는 못간다고 말씀하신다. 소통체계의 문제가 있어 환경미화원분들이 일하시는 새벽시간에 음료수를 사들고 여러 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다. 몇 달에 걸친 설득과 행정절차 끝에 승낙을 얻어 공간을 이동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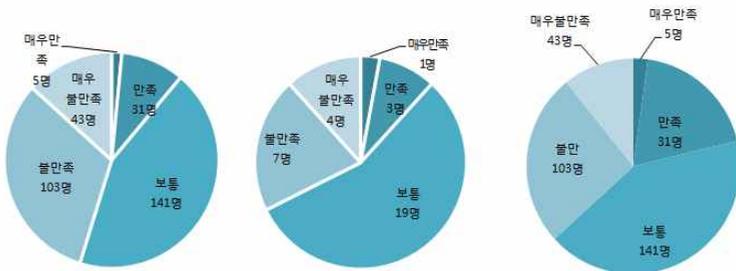
환경미화시설 물청소



자율방범시설 물청소



동선고가도로 외벽 철거 후 모습



동선고가도로 현황에 대한 만족도 및 설문조사(지역주민, 상인, 방문객 603명)

동선동에서 장가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63년 동안 살았습니다.
 새로운 공간이 생긴다면 거기서 농악놀이도 하고 싶고, 수예도 하고 싶습니다.
 '되넘이고개'에 얽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도 싶습니다.
 이곳에서 또 한번 꿈을 꾸고 싶습니다.
 [오태영(84세) 미아리고개 앞 동선동경로당]

코앞에 있는 곳이지만 잘 다니지는 않았어요. 워낙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가 강해서. 그 공간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게 쓰레기예요.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걸 많이 봐서. 아저씨들이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서 씻기도 하시곤 했어요. 환한 분위기요. 공원이 조성되기엔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것 아니라도 좀 환한 분위기로 꾸며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꽃을 좋아하는데 꽃과 어울리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이곳은 제 직장인데 고가도로 인해서 환한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양인자(43세), 동선고가차도 인근 S할인마트 점원]

이분들 이외에도 폐지 쌓아 두는 창고로 사용하시는 주민, 건설자재를 쌓아 두는 주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싫다고 말하는 공무원까지 다양한 분들이 이곳에 얽혀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사람들 간의 '호혜성'을 만들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의 특성상 익명성과 개인성이 발달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또는 집단적 이기가 드러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즉 이 공간을 개인이 사용하는 '사유재'에서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공유재'로 인식할 수 있어야 했다. 때로는 개인의 불편함을 초래하더라도 말이다. 미아리고개 하부공간은 오랜 시간 특정인의 소유물처럼 사용되어 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정 조건과 이성적인 조건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성적인 판단이외에도 감성적인 접근과 소통이 필요하다. 몇 개월에 걸쳐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 또한 마을에 일원이 되어 갔다. 이제는 주민 분들이 먼저 이 사업이 잘 되려면 무엇을 도와줘야 하며 물어보시는 분들까지 생겼다.

몇 개월을 주민 설명과 행정절차를 거쳐 공간의 이동과

2015년 7월 미인도프로젝트 시행



공영장 하부 기초공사



공영장 하부 기초공사



공영장 마루 공사

철거가 시작되었다. 철거는 3일 만에 끝이 났다. 철거를 마치고 나니 생각보다도 넓고 밝은 공간이 만들어졌다. 2015년 7월 1일부터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공간조성공사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고, 동선 고가도로의 관리주체인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다. 시설들을 만들었다, 해체하고를 반복하며, 지난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다. 몇 주에 걸친 행정절차를 통해 바닥 조성에 대한 허가가 떨어졌고, 공사를 재개했다. 화재 등의 안전시설과 조건들을 갖추는 조건이었다. 주민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성북구청의 청소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동사무소, 문화재단, 서울시 북부도로 사업소 등 다양한 부처들이 얽혀 있다. 현실로도 여실히 보여줬지만, 행정적으로는 많은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일이 된다. 따라서 유희공간 활용 사업은 사업시행 이전에 주민과 행정 절차 상에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율하고 시작하는 것이 그나마도 안정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연장 마루 공사



공연장 마루 공사



공연장 마루 공사



공연장 난간 공사

나. 장소 만들기 : 공간계획과 조성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건물들의 조건을 다 갖추 수는 없다. 미아리고개 하부공간은 교각이 연결되는 부위의 누수와 화장실 등의 수공간은 해결이 불가능한 공간이었다. 따라서 조건에 맞게 구조물을 이격하거나, 인근 공공건물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미아리고개 하부공간의 조성은 일반적인 공사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간 조성공사 자체를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로 기획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건축과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였고, 지나다니는 주민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시간 날 때 마다 함께 만들어 갔다. 인근에 합숙하는 숙소를 마련해 일하고, 놀고, 밥을 먹는 것까지 동선동에서 함께했다. 길을 지나는 주민이 음료수와 먹을 것들을 사들고 오시기도 하고, 고생한다고 말을 건네기도 하면서 주민들과도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재의 사용이 많아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이었다. 공간의 구체적인 용도와 디자인, 공사

지자체와의 의사소통

공공부지의 유희공간 활용은 지자체의 의지와 직결되어 있다. 대부분 여러 부처와 관계되어 있으므로 각 부처 간의 원활한 협의과정과 사업의 진행이 선결과제이다. 또한 행정 편의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사례가 없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을 최대한 강하게 적용하려고 하거나, 판단유보하면서 공사가 지지부진해진다. 미아리고개 하부 공간 조성에서는 문화재단이 전문적인 분야까지 일괄적으로 행정적 협의를 진행하면서 협의과정 자체가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디자인, 색상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행정에서 개입하면서 공사에 어려움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전협의 등을 통해 행정처리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전문분야의 영역에 맞게 업무를 분장해 두어야 한다.

사업 주체간의 의사소통

미인도프로젝트는 사단법인 문화도시연구소(건축), 스페이스 오뉴월(미술), 성북문화재단(행정) 3개의 단체가 공동 기획하여 만들어졌다. 각각의 전문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영향력(예산)이 강함으로 행정의 입맛에 맞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각각의 사업주체는 각각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초기부터 각각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구성해 두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행정은 행정지원만을 하고, 기획자에게 사업의 진행과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참여 예술가와의 의사소통

참여 예술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10회 문화도시 재생 강연프로그램을 만들어 기획자와 예술가들이 공유하는 지점을 만들었다. 2주마다 정기적인 자리를 만들어 각자의

2015년 9월
미인도프로젝트 공간사용



공연장 인터넷 방송 촬영



데크공간 야간 전경



환경미화원 쉼터



공연장 야간 전경



갤러리 공간



갤러리 공간

진행사항과 의견을 나누었다. 참여 예술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간 계획안에 반영하였다. 장소 특정적인 작품을 만들어 특성상 공간이 어떻게 조성 되느냐에 따라 작품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여 예술가와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공연장 행사 전경

다. 문화예술로 주민과 함께하기 : 예술작품과 문화행사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예술가는 주민에 가깝게 다가가고, 주민은 예술가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간조성은 주민이 주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게 되느냐가 사업의 성공유무를 가른다고 봐도 될 것이다. 공공미술 또는 도시재생 사업이 공간만 덩그러니 만들어 두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위해서 주민과 예술가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미인도프로젝트는 일상공간에서 예술을 느낄 수 있는 작품과 삶을 담은 작품을 만들었으며, 아트마켓이나 공연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물놀이패, 중창단, 밴드 등으로 이루어졌다. 주민이 관객이면서 공연자이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이들이 이곳에서 자체적으로 공연도 하고, 공간도 변화시켜갈 수 있도록 힘을 배양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초기부터 지역 주체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낮선 공간에서 개장한 지 3주 후 동네주민들의 쉼터로 사용

3. 「미인도 프로젝트」의 교훈

가. 민간주도형 거버넌스

유희공간은 담당하는 기관과 부처가 복잡한 관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율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한 이전까지 관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 부처에서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심지어 기존 하던 업무 외에 다른 업무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조차 반대하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사전협의를 통해 협약을 맺거나, 동의를 구해 두는 것이 좋다. 앞서 말한 대로 성북문화재단이 여느 재단보다 '거버넌스형'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문화재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을 기획하거나 계획하는 곳이 아니라 행정과의 사이에서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이다. 사업이 행정적으로 흘러가다 보면 사업의 추진을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같은 창조적인 사업의 시행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행사를 진행할 때 주민이 주인이기 보다는 '의전'에 치우쳐 참석한 사람들 소개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다반사다.

나. 유사사례-코가네초

유희공간의 활용을 위한 기획은 그 이전에 기존 연구 자료나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시작하여야 한다. 관련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내규로 규정되어 있어 유권해석의 가능성을 다분히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례의 검토를 통해 좋은 점 보다는 나쁜 점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런 사업들 대부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의 조합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므로 지역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미인도프로젝트와 가장 유사한 일본 요코하마 코가네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개발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주로 상가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코가네초의 경우 문화시설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갤러리, 책방, 레지던시 등으로 다양한 문화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민간에서 제안해서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이전 사창가를 없애고 문화시설로 조성한 것이다. 우리와 다른 것은 적극

적인 건축행위를 통해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과의 교류가 적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나, 파인아트에 치우치면서 주민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쉽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한다면 고가로도 하부 공간 활용의 어떤 사례보다 잘 된 사례이다.





다. 문화예술로 시민에게 돌려주기 : 주민이 만드는 행사

공공미술과 도시재생은 예술가를 위해 또는 전문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예쁜 작품으로 또는 돈을 많이 들이는 것으로 좋은 공공미술, 도시재생이 되지 않는다. 공공미술과 도시재생의 판단 기준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주체적으로 참여했느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문화예술을 향유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예술가가 떠난 뒤에도 이 공간을, 작품을 향유할 수 있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었느냐에 있다. 따라서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기획단계에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행사 등에 대한 파악과 지역 주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새로 조성되는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주체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공공미술, 도시재생 사업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얼마나 남겼느냐'로 판가름 되어야 한다.